千 당무 복귀…국민의당 내분 봉합

〈정배〉

安과 담판 회동 후 한발 양보…김한길 "탈당 고려 안해"

더민주 공천 마무리 수순…총선 一與多野 구도 현실화

4·13 총선이 일단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확립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내지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사실상 독자 행보를 선언했고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도 수도권 연대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당무에 복귀, 연대 이슈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길 전망이다.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15일 이날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권연대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정식으로 안을 제시하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적 차원에서 연대라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당대당이나 큰 틀에서 연대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진작 서둘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야권연대 문제를 두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40여분 회동했다.

이날 회동에서 안 상임대표는 수도권에서 개별적 연대는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 대 당 연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이어 더민주가 아무런 제의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먼저 연대를 제안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천 대표는 이날 오후에 입장발표문을 통해 그동안의 수도권 연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연남동 기사식당에서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지역구인 노원구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천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여러 여건 상 당 차원의 수도권 연대는 여의치 않고, 이 상태에서 더욱 열심히 당 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고 당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도권 연대에 주장에 한 발 물러나 우선 당의 승리에 전력을 기울이며 후보 간의 개별적 연대 등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날 야권연대를 요구하며 안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한 김한길 의원도 일부에서 탈당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 주변 인사들에게 "탈당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지난 2일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야권통합을 제안한 후 2주 가까이 계속된 내홍의 늪에서 벗어나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박주선, 광주 동남을 출마 선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동남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호남을 설레게 할 비전과 포부가 준비돼 있다고 자부하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광주 동·남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역친화형 면세점 유치 등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 활성화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및 예술의 거리 문화특구 추진 ▲대인시장·남광주시장 문화예술형 특화시장 추진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기관 지원 확대 등이다.

강운태 "주거환경 개선·문화시설 확충"

무소속 강운태 광주 동남 갑 예비후보는 15일 남구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문화와 체육시설을 확충, 환경과 조화를 이뤄 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 시절 남구 각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성공리에 마무리한 적이 있다"면서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5대 권역별 확충해 주민 1인1종목 생활체육, 작은 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사망선고 더민주 믿지말라"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5일 전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생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위장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를 내린 더민주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 전 지사는 "더민주가 현란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봉사와 소명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국민의당은 국가를 개조하고 호남정신을 재창조함으로써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정일, 여수 갑 출마 기자회견

새누리당 신정일 여수 갑 예비후보는 15일 여수시청에서 연 출마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여수시민들과 협력해 반드시 선거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협력해 성공적 개최를 이끈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씩 풀어내는 여수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김성환 "면세유 지원 대상 시설까지 확대"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현행 조세제한특례법 106조의 2에 의한 면세유 지원 대상을 복지분야까지 확대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실질적 기초생활복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면세유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까지 확대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의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초생활복지 실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경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계획"

국민의당 안재경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대들"이라며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센터(가칭)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대 이상 장년층을 위해 인생재설계 상담 및 교육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종행·여수=김창화기자 chkim@

주말 경선 앞둔 野 후보들 표심잡기 총력전

문자메시지·SNS로 참여 독려…1인당 경선비용 최대 175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예비후보들이 이번주 진행되는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모으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경선을, 국민의당은 숙의배심원단 100% 또는 숙의배심원단(70%)+여론조사(30%) 경선을 도입하면서 예비후보들 마다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더민주는 광주 3개 경선지역에서 17~20일까지 유권자 5만 명의 안심번호를 통신사로부터 받아 최소 300명 이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휴대폰 전화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SNS를 통해 예비후보 사진을 곁들인 투표 방식 소개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측은 오프라인에서도 조직을 가동해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방식을 상세히 소개하는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당 예비후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숙의배심원단제는 후보들 간 토론이나 연설회를 연 뒤 배심원단이 평가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비후보들은 당락을 좌우할 배심원단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배심원단 모집 전화에 적극 참여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기본이고 SNS를 통해 상세한 참여 방식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각 당 예비후보들의 무분별한 지지호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SNS발송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총선 공식 경선 비용만 예비후보 1인당 최대 1750만원에 달한다. 국민의당은 숙의배심원단제로 100%로 후보를 뽑는 광주지역 2인 경선 선거구는 후보마다 1250만원을 부담하고, 3인 경선 선거구는 후보마다 850만원을 부담한다.

숙의배심원단 70%와 여론조사 30%로 후보를 뽑는 3인 경선 선거구(북구갑, 서구갑)는 후보마다 1750만원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뽑는 2인 경선 선거구(서구갑, 북구을)는 후보마다 1500만원을 내야하고, 3인 경선 선거구(광산갑)는 후보마다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3인 경선 선거구는 결선투표 때(최초 투표에서 특정후보가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후보마다 75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750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매수·흑색선전…전남 최고 혼탁 선거구는 '여수갑'

〈혼탁지수 87〉

선관위 3곳 혼탁지역 지정 단속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는 여수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4·13 총선을 앞두고 여수갑, 목포,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등 3곳의 선거구를 혼탁지역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의 혼탁선거 지수(CEI· Corrupt Election Index)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여수갑이 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 45.6점 ▲해남·완도·진도 44.4점을 기록했다. 이어 ▲순천(36.4점) ▲영암·무안·신안(13.4점) ▲광양·곡성·구례(11.6점) ▲여수을(7.33점)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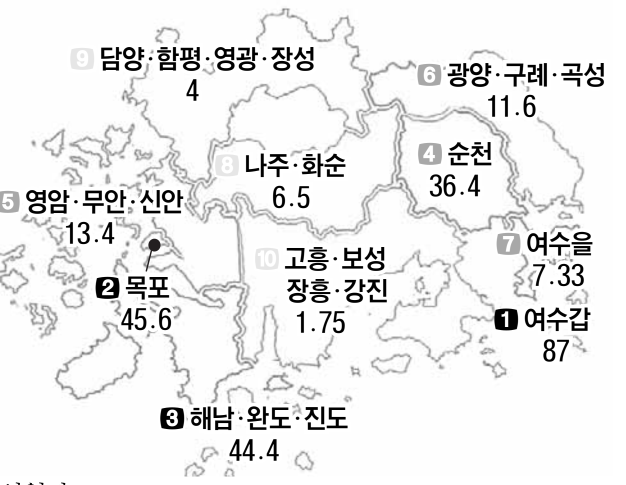
평온지역은 ▲나주·화순(6.5점) ▲영광·함평·담양·장성(4.0점) ▲고흥·보성·장흥·강진(1.75점)이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매수·기부행위가 86.1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법여론조사(58.9점), 지역언론의 허위·왜곡보도(41.4점), 흑색선전(37.3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혼탁지수는 6가지 선거범죄 유형별로 신고·제보와 조치도(40%), 언론보도 빈도(20%), 패널인식 정도(40%)를 반영해 산출한 값이다. /최권일기자 cki@

■4·13 총선 전남 선거구별 혼탁선거지수(CEL)

선거구별 혼탁선거지수

1	여수갑
2	목포
3	해남·완도·진도
4	순천
5	영암·무안·신안
6	광양·곡성·구례
7	여수을
8	나주·화순
9	담양·함평·영광·장성
10	고흥·보성·장흥·강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모 집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 급
-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 응시자격
본학회 4학기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9: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종별로 별도 커리큐럼 참조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북구청 앞, 튼튼정형외과 병원 옆)

■ 문 의 : ☎ 062-511-2488, 010-3615-2488

■ 홈페이지 : http://tmps.kr 또는 "통맥풍수"를 치세요.
e-mail : insans@daum.net

■ 이사장 윤갑원(尹甲源) 프로필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 (書記官) 역임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硏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前 서울경희대. 東서울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前 서울德成女大, 서울敎育大,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敎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會圓 매주 定期的인 現場敎育 實施

◆ 著 書
1. 道詵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선조합동묘(先祖合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붕판(棚板)"

이사장 윤갑원

학회장 김웅국

제5대 이사

이사장	윤갑원
상임이사	김웅국
이사	김종수
이사	임태종
이사	황정연
이사	이종근
이사	정병선
이사	양동주
이사	정태일
이사	이미경
감사	박석규
감사	김영희
사무국장	윤인성
총무	조복